예수님의 지상명령(III) - 사사(師事)

(마28:20a)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 번째 - 사사(師事)'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사(師事), 사사(師事)라고 하는 말은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소월시인이 김억에게 사사를 했다, 김억을 스승으로 삼아서 김소월이 시작에 대한 공부를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사사(師事)한다는 얘기는.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사사(師事)라고 하는 말의 뜻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을 삼아서 교육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사(師事)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라는 얘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스승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새신자가 목사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몇 주 안돼서 하루에 2~3장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은 지 몇 주 안돼서, 마태복음에 있는 28장 20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딱 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미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다 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이 기준을 우리가 새로 교인이 된 사람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래 믿은 장로님은 나가서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 이전에,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고 계시는, 첫 번째 제자군(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어디부터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부터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에 자기인생을 걸고, 자기 심장을 드리도록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들이 제자를 삼아서 자기들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과 그 내용이나 모든 것이 같을까요?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과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 문제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제대로 배웠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사(師事)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운 대로?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 앞에서 누가 나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 가르친 바 대로 누구를 또 가르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수행해서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대로 제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 사사(師事)를 받아서 제자가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뭐가 마찬가지냐?
스승이 돼서 제자를 삼으려 해도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제자가 돼서 어떤 스승에게 사사(師事)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담 스미스에게 가서 양자역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당파 고수에게 찾아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훌륭한 상인이 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기독교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스승을 찾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배울 줄 알고 스승을 찾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해주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배워서 가르치고 계시고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부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도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 하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산상수훈이나 여러 군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들, 명령형으로 쓰여 진 말씀들 또 제자들을 놓고 하신 설교나 강화, 비유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로 전해진 말씀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뿐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동 중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신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이 그저 뭐 기도하셨구나, 그랬구나!'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 행위 속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쁜 생활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러고 끝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풍랑이 일 때에 나도 잠을 잘 수 있는 심령이 되라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중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분부하신 것'이라 함은 구약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향해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쓰여 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형이 아닌 말씀들이나 예수님의 행위만이 분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분부하심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없으니까.

자, 이것을 무슨 수로 어떻게 실천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도록 배워 본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실천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산상수훈 하나만 놓고도 그게 실천이 가능한 얘기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지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안 되지요.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다, 베델 성경공부다, 가지가지 성경공부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들을 담아놓고 그것을 가르치면 그것을 제자교육으로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것도 잘못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교육이 뭐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같이 모여 있지만 그분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서계신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 저편에 서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해 보자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그의 부활은 세상 이편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강,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경계 저편으로 가계신 상태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11사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바울의 말대로 500명 추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지금 제자를 삼아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심장이
죽음의 강을 넘고, 이 세상의 다사다난한 모든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 세상경계 밖에 계신 부
활하신 예수님께로 마음이 드려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에는 심장들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관이 되어있고, 예수님께서 그 심장을 들고 승천해 버리시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수님의 행위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분부와 관계가 있지마는, 우리가 구체
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자를 삼거나 배움을 받거나 하는 이 과정에서 내용이 제한된다는 겁니
다.

도하! 죽음의 강을 넘어 계신 주님, 그리고 아직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지 못한 강 이 편에
있는 이 상황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 중에 구체적으로 제자를 교육해야 하는 내용들을 제한
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해외지사에 파견되는 부장에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꼭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회사와 연관 지어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국내 생산파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국내 영업부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한 모~든 말 중에서 국내 영업부에 해당하는 말 말고, 국내 생산파트에 해당되는 말 말고, 해외지사에 관한 말만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꼭 지키라'고 말 할 때는 해외지사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죽음의 강을 넘어계시고 세상의 경계 바깥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죽음의 강 너머에 있는 나에게로 보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도하와 관계된, 죽음의 강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라는 이 상황이 말씀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도 제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제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르치지요, 뭘 가르칠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해결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를 제자로 삼을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나'라는 상태가 돈이 없어서 곤란 당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상태에서 불행하다고 파악을 한 겁니다.
제자의 상태가 그러니까,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는, '병에서 놓임 받을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잘살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이 세계의 경계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고 제자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거기다 대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의 추종자들에게 위탁을 하고 명령을 하실 때는,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사람의 마음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심장을 죽음의 강 건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자의 상황을 이해했는데, 세상경계 바깥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 교회역사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친 스승이 몇 명이고, 이렇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가장 모델적으로 수행한 사람을 한번 골라서 생각해 봅니다.
누굽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이 예수그리스도, 그 예수그리스도가 어떤 예수그리스도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그리스도! 이 십자가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스승입니다.
그러면 그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밖에는 들을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로 작정한 스승이니까 그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해외지사로 파견시키는 그 부장에게 내가 지시한 모든 걸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외지사에 당연히 관계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의 상황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결국 제자 삼아서 스승 된 자로서, 기독교 안에서 스승 된 자로서 제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마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이 되려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자! 사업이 안돼서 고민하는 교인이 옵니다.
그러면 스승 되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되느냐?
마음을 이 세상경계 안에 있는 사업에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대신에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그 교인의 마음을 빼서, 죽음의 강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께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자녀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에게 마음을 다~ 뺏기는 어머니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러면 이 제자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 제자에게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시키고, 베델 성경공부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경계 안에 자식에게 다~ 묶여있구나, 그러면 이 자식에게 묶여있어서 세상경계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끌고 가야 되겠다', 제자의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몸이 아픈 그런 제자가 왔다!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붙어있는 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과 자식과 건강이 상해진 내 몸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세상 바깥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어야 주님께서 지금 제자 삼으라고 하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따라서 나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배워 본적이 없습니다.
전부 세상경계 안에서 어떡하든지 잘 먹고 잘사는 법대로 가르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말대로 십자가만 가르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달하는 과정은 막달라 마리아코스를 밟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동일시하고, 장사 지내지는 주님과 동일시하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과 동일시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코스에요, 막달라 마리아 코스.
이 코스를 지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코스를 지나도록.

그러면 나머지 다른 성경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그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성경말씀에서 십자가와의 연결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주석이고 해석이고 설교의 과제가 됩니다.
만약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이 오른편 뺨, 왼편 뺨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주석하고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해석의 완성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관계없어 보이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의미를 찾아내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어느 구절을 갖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렇지요?
구약전체 그리고 신약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성경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통하게 되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로 연결 지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본문 갖고는 설교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느냐?
반드시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와 상관없는 구절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발견되고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도달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구절 갖고는 절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어주시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꾸역꾸역 교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제자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사사(師事)를 받느냐?
어떤 것으로 사사(師事)를, 어떤 내용으로 사사(師事)를 받아야 되느냐?
도하!
죽음의 강을 넘느냐? 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상황이 내가 제자를 삼을 것을 결정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칠 내용을 결정하고, 내가 배울 것을 또한 결정해 주며, 이 내용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열려지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가 경험되어야, 내가 참 제자고 내가 참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죽음의 강을 경계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스승 된 자와 제자 된 자의 마음가짐이 결정되고, 가르쳐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